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정책: 민족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강 휘 원*

〈目 次〉

- I. 서 론
- II. 민족과 언어 및 다문화
- III.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 IV. 키르기스스탄의 국가형성과 언어정책
- V.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으로의 전환과 정책집행
- VI. 결 론

〈요 약〉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조화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언어정책과 관련된 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1991년의 소련 해체 이후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대두된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에서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통합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민족으로 인한 언어의 갈등문제와 다문화 언어정책의 분석을 위해 관련 이론들을 논의한 후에, 구체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현황, 국가 형성과정에서 언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단일언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적 언어 갈등은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에 의해 유도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은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으로부터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민족·다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에 관련된 인권 보호 목적에 잘 적응하는 것과 동화주의 또는 분리주의 정책보다도 더 사회통합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키르기스스탄, 단일언어정책, 다문화 언어정책, 소수 민족】

*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hwiwkang@ptu.ac.kr).

논문접수일(2008.4.27), 수정일(2008.5.28), 게재확정일(2008.6.15)

I. 서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의 5개 독립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들 공화국들은 소연방 시절부터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의 이주와 혼합으로 인하여 이미 다민족 식민국가를 이루고 있었다.¹⁾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해체 이후 고유 민족언어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연방 시대의 공식 언어였던 러시아어가 아닌 각기 자국의 명목(titular) 민족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각 공화국의 명목언어는 개별 민족의 정체성을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 요인이 되었다(Koenig, 1999). 각 공화국의 민족주의화는 바로 이러한 언어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었는데, 각 공화국 영토 내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명목민족(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키르기스인)이 주도가 되어 언어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들의 언어법안은 러시아어에 대한 반대적 선언을 의미하였다(정세진, 2007).

제정된 언어법안은 주류 명목민족을 우선시키고 여타 소수민족을 배타적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Kreindler, 1997), 결과적으로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른 소수민족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점진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타적 언어정책은 러시아인 등 소수민족 구성원의 언어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경제, 산업, 교육부문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던 이들의 탈국가화(emigration)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하면서 언어정책의 변화를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점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집단 간에 공유되는 정치·경제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이중적(dual) 임무에 다문화 언어정책(multicultural language policies)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한다(Koenig, 1999). 왜냐하면, 국가(state) 또는 민족(ethnicity)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단위는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수단인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 연구는 실제 소련 연방국이었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에서 소련 해체 이후 어떻게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사회통합을 위

1) 1991년의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하게 된 5개 공화국은 원래 국가 경계선이 전통적으로 획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제정 러시아가 19세기 중반에 중앙아시아 지역을 복속하였는데,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연방이 출발하면서 통치체제의 특성에 맞게 스탈린이 임의로 5개 자치공화국의 경계선을 설정한 결과, 민족이나 인종, 언어들이 혼재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체성의 특징 및 각 자치공화국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정세진(2007) 참조.

하여 언어정책(linguistic policies)과 관련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민족으로 인한 언어의 갈등 문제와 다문화 언어정책의 분석을 위한 관련 이론들을 논의한다. 둘째,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소련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국가 형성과정에서 언어정책의 역할을 분석한다. 넷째, 단일언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다민족·다문화 국가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정책 변동을 통한 통합 시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사회도 2007년 현재 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소수인종의 문제는 강력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한국사회는 키르기스스탄 또는 여타 다민족 국가들 만큼 공식언어로서의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정책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현행 외국 노동자 및 국제결혼 배우자 등의 소수민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언어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영어 몰입 교육)정책을 함께 어우르면서, 향후 인종적 다양성의 비중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언어정책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의 해체 이후 국가 및 국민 형성의 과정에서 여전히 다민족성과 언어적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이지만(장병욱, 2005), 비록 민주주의 체제로의 후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환의 과정에서 이들의 통합 노력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할 것이다.

II. 민족과 언어 및 다문화

1.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언어의 기능

오늘날 특정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언어적 소수집단의 재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민족형성(nation-building)의 이중적 역학관계(dual dynamics)를 나타낸다(Vilfan, 1993). 첫째, 언어적 소수집단의 정체성 구축에 대한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분석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언어와 같은 ‘객관적인’ 상징적 기준에 근거한 민족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는 원초주의(primordialism) 이론은 사회집단이 객관적으로 “주어진”(given) 것으로 간주되는 영토, 종교, 문화, 관습, 언어와

같은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가정하면서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한다(임지현, 2000). 둘째, 민족형성의 과정에서 분출될 수 있는 민족 간 갈등 또는 언어 갈등은 상징적 기준에 의해 야기되기보다는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과 같은 ‘주관적인’ 복잡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Smith, 1997: 200). 이 주관적 과정에 근거하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 이론은 민족을 근대화화의 부산물로 보는데, 민족주의란 결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 이데올로기로서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 도구주의적 민족이론은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 구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임지현, 2000). 이 주관적 접근방법은 정치적 동원 및 조작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요컨대, 이러한 원초주의나 도구주의는 오늘날의 국민(민족)국가에서 사회통합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족개념은 각 나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²⁾

일반적으로 언어는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의사전달(communication) 기능과 상징적 표현(representation)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Edwards, 1994). 이 기능에 대한 접근방법 가운데서 민족 형성에 대한 도구주의 이론은 민족을 상징적 경계선 구축과정의 결과로서 설명하면서 언어를 민족 정체성 구축에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보고 있다(Fishman, 1977). 이 이론은 언어 습득의 다양한 도구와 유지 요인, 특정 민족의 언어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수집단 가운데 언어 사용의 다양한 유형들이 연구해 왔다(Dow, 1991). 더욱 최근에는 민족형성의 정치적·경제적 요인 및 언어의 도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도되어 왔는데, 이는 근대국가 및 국민형성의 맥락에서 민족과 언어가 정치 동원과 정치 갈등의 주요 원천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박탈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수언어의 지위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개인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은 근래 “언어의 경제”(economy of languages)라고 불려진 주제의 핵심이다(Grin & Sfreddo, 1996). 이 키르기스스탄 사례에서 키르기스인을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박탈은 언어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실례로, 박호성(1997)은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발생한 시민권 중심의 프랑스식 ‘국가 민족’, 혈연과 계통을 중심으로 한 독일식 ‘문화민족’, 그리고 제3세계 등에서 이민족 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저항민족’으로 유형화 한다. 한편 민족주의 형성의 또 다른 구분유형으로서 Anderson(1995)는 ‘근대화 민족주의 이론’, ‘마르크스 민족이론’, ‘내부적 민족주의 이론’, ‘상호작용적 민족주의 이론’, ‘반발적 민족주의 이론’으로 분류한다.

2. 다문화사회의 포용과 언어정책 유형

민주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수용하는 것과 같이,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수용할 수 있는가? 캐나다(Cummins, 1984; Bourhis, 1994; 유정석, 2004) 및 호주(Ozolnis, 1993; Smolicz, 1994, 이용승, 2004)와 같은 국가들은 이 다문화주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공식 천명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민족의 언어인 키르기스어를 공식언어로 선언하는 민족주의 언어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다른 소수민족의 반발과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다문화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소수민족을 어우르는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다문화정책을 정책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민족국가에서 사회통합의 구조적 딜레마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Habermas(1994)에 따르면, 민족적 및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에서 민족 또는 문화적 정체성 집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따라서 국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의 모델을 제공하는 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안으로 포함되어 질 수 있다.

한 국가 안에 다문화·다인종·다언어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 각 국가마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포용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다수의 언어가 존재할 때에 수행할 수 있는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비록 이러한 유형들은 언어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동화주의, 분리주의, 다문화주의로 분류된다(Skutnabb-Kangas & Philippon, 1994; Inglis, 1996; Stavenhagen, 1996). 첫째, 동화주의(assimilationism) 모델로서 단일언어주의를 고수하고 주류사회에의 동화를 통한 언어적 동질화(homogenization)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화는 소수 이민자 집단이 기존 주류사회 문화 속으로 융해되어 소수집단 자신의 고유문화는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전통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근대국가에서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되며 이로부터 동화정책이 도출된다(Taylor, 1997). 비록 언어적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될지라도, 실제로 동화 지향적 정책전략은 공공교육에서 공식언어 하나로 교육받는 것을 육성하는 교육정책에 의하여 비공식적인 소수집단 언어의 유지와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분리주의(differentialist) 또는 배제주의(exclusionist) 모델은 단일언어주의 이념에 의해 동일하게 유도되지만, 이것은 언어적 소수민족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이 모델은 주류사회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제도와 유사한 것을 언어적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제도, 즉 학교, 미디어, 시민단체

와 같은 병렬기관(parallel institutions)들의 창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소수민족의 이러한 병렬적 기관들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주류사회에 이 소수민족의 참여를 제한한다.

셋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델은 공공영역에서 정치권력의 공유 및 언어적 소수민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적하고 있는데, 주로 캐나다와 호주의 정책유형을 들 수 있다. 소수민족 자체의 학교와 언론 및 시민단체와 같은 병렬기관의 창출을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언어적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영역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공공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히 교육 및 대중미디어에서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의 사용을 촉진한다(Edwards, 1994).

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관할해야 하는 거버넌스 확립과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인 전제조건으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 표출(다문화주의 이념의 채택)과 국가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서비스 조직형태의 변화, 즉 거버넌스 형태의 변화에 대한 점진적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적 도구로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언어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들이 필요하다(關根政美, 1996 : 41-42).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교육, 통역제도, 다문화방송, 이민자, 소수집단의 언어·고유문화 보존을 위한 보조금제도,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취업 상의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 사회적 관용성을 증대시키고 차별의식을 타파하여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인종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Ⅲ.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1. 역사적 배경과 소연방 편입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 형성에 대한 설명은 제정 러시아의 역사적 기원, 소연방 시절의 식민지적 유산, 그리고 소연방 해체 이후의 국가 형성과 민족 정체성 확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연방의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5개 공화국은 러시아의 유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에 대항하는 ‘반발적 민족주의’(reactive nationalism)의 기반 위에, 과거 공산당 출신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권위주의가 더하여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정세진, 2007).

키르기스스탄은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남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

탄, 남쪽으로는 타지키스탄, 남동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이루면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 19만9천9백km²,³⁾ 인구 약 5백만명(2003년 추계)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의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른 독립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키르기스 민족은 10세기 이후 몽고, Chungizid족, 코칸드 칸국, 그리고 러시아 등 여러 세력에게 침입을 받아 왔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키르기스스탄은 북부의 러시아 제국과 서부의 우즈베크족의 코칸드 칸국 사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나, 이 세력들에게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았다. 1910년까지 키르기스스탄은 코칸드 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키르기스인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가족, 씨족, 부족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유목민 사회로 살아왔는데, 이는 1920년대의 소비에트 지배 이전만 해도 모든 키르기스인의 생활양식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지배는 전통적인 키르기스 사회의 정치와 생활양식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1924년 자치지역, 1926년 자치공화국, 그리고 1936년에는 연방공화국 등의 정부구조를 갖춘 국가체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의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합병되면서 초기에는 부족집단 크기의 작은 공동농장이 형성되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1960년대는 거대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 전환하였다. 키르기스에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국내경제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소비에트의 지배 아래에서는 강압적으로 유목생활 대신 정착생활로 대체되었다. 사유재산은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노동계급이 사회 지도세력으로 대두되었다(장병욱,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키르기스인들의 엄청난 사회적·심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그들 특유의 문화적·정신적 삶을 위협하였다. Achylova(1995)에 따르면, 소련에 합병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공산주의 이념, 중앙집권적 및 전체주의적(totalitarian) 정치체제와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국가였고, 정치기관들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키르기스 사회의 오래된 원시 민주적 성향을 퇴색시키고 삶의 전통적 리듬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련 지배의 영향과 다민족적 구성

중앙아시아 지역의 소연방 편입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생산방식과 조직유형의 변화, 다른 소수민족 거주 비율의 증가, 민족 계층화에 따른 러시아인의 우위,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Koenig, 1999). 첫째, 소련의 행정과 경제구조의 도입은 소련 집단농장

3) 2002년 5월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1,250km² 포함하는데, 총 면적은 우리 남한 면적의 약 2배 정도이다.

(Kolkhoz) 내에 정착과 새로운 형태의 농업생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 유목민 부족의 사회조직 유형을 강제로 바꾸게 하였다. 둘째, 전체 인구를 재배치하는 소련의 정책은 특히 키르기스스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다양한 이주 사례들로 지난 세기에 걸쳐 점차 더욱 다민족성을 띠게 되었다(장병욱, 2005). 이러한 이주의 물결은 소련 지배 초기에 토지 없는 러시아 농노들의 재정착으로 인해 시작되면서 그 후 집단화와 산업화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공산당원들의 이주가 계속되고, 1960년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들여온 수입 노동력으로 인해 러시아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의 이주는 1960년대 최고조에 달하였다<표 1>.

<표 1> 키르기스스탄의 인종 비율(%)

국적	1926	1936	1959	1970	1980	1989	1994	1998
키르기스인	66.8	51.7	40.5	42.6	41.1	52.4	56.0	58.6
러시아인	11.7	20.8	30.2	29.2	25.4	21.5	16.7	17.1
우즈베크인	10.6	10.4	10.6	11.4	11.9	12.9	-	-
우크라이나인	6.4	9.4	6.6	4.1	3.0	2.5	-	-
독일인	0.4	0.8	1.9	3.1	2.8	2.4	-	-
타타르인	0.5	1.4	2.7	2.4	2.0	1.6	-	-
타 중앙아시아인	0.5	0.7	0.7	0.8	0.8	0.9	-	-
기타	1.4	2.1	4.5	3.1	3.0	3.2	-	-

출처: 장병욱(2005 : 42).

요컨대, 소련 해체 직전인 1989년 당시 키르기스스탄에서 다른 소수민족으로는 러시아인(21.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즈베크스탄인(12.9%) 등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구의 절반은 명목(名目) 민족인 키르기스인이 아닌 거의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키르기스스탄의 현대화 과정은 러시아인들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지배하는 민족 계층화의 출현을 동반하였다. 그들의 정치적 지배 이외에도, 교육 및 직업훈련의 수준도 러시아인들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과 행정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요 요직을 차지하였다. 넷째, 거주유형 및 생산방식의 변화는 지방정부들에게 또 다른 문제점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인구가 도시로의 집단적 강제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거의 모든 키르기스스탄 인구가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을 받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도시인구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표 2>.

〈표 2〉 키르기스스탄의 도시 인구 비율 (1926-1989)

년도	도시인구/ 전체인구 (%)	도시 키르기스인/ 전체 키르기스인(%)	도시 키르기스인/ 전체 도시인구(%)	도시 러시아/ 전체 러시아(%)	러시아/ 전체 도시인구(%)
1926	12.0	0.8	4.7	38.7	38.0
1939	18.5	3.6	10.1	44.4	49.8
1959	33.7	11.0	13.2	57.8	51.8
1970	37.4	14.5	16.9	65.9	51.4
1979	38.3	18.3	22.9	68.6	46.4
1989	38.2	21.7	29.6	69.9	39.1

출처 : Khazanov(1995 : 261), 〈Table 4-2〉

이러한 소련의 지배와 민족 이동, 민족 계층화,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는 키르기스인들의 생활양식과 정신적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지역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통일된 전체주의적 소비에트 이념과 정치체제의 강요는 키르기스인들에게 경직된 교육체계의 실시, 산업화와 경제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불균형 초래, 국어 및 전통과 민족문화 발전의 지체, 키르기스 사회에서의 이슬람 종교의 위상 약화와 무신앙주의, 시민사회와 도덕적 가치의 쇠퇴 등을 초래하였다. 사회와 직장의 집단적 요구가 개인생활과 가족보다 우선시 되었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생산성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전통과 단절되면서 키르기스인의 정신적 분열은 가속화되어 기존의 전통적 관습과 신념을 따르는 것과 강압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추종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련방의 지배 하에서 무관심, 위선, 냉소, 태만, 비도덕성과 같은 행태가 키르기스인들 가운데 노출되었다(장병옥, 2005). 그리고 1991년 소련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키르기스스탄 및 다른 옛 소련 공화국들에게 공산체제의 붕괴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심리적, 가치관적 혼란의 또 다른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IV. 키르기스스탄의 국가형성과 언어정책

1. 소련 지배하의 언어정책과 언어의 도구적 기능

1990년의 소련 해체 이후 다른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언어 논쟁이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차원이 되었다. 이는 독립 이후 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 정체성 주장의 정치적 요인으로 언어가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담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 지배하의 언어정책은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연방 시절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스탄인의 불평등한 참여는 언어 상황에서도 반영되었다. 소련 지배하의 언어정책은 단순히 러시아어를 러시아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언어 형성”(language building)의 레닌주의 이데올로기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련제국의 국가 언어와 소수민족 언어를 현대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명백하게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Deshirev, 1984). 예를 들면, 소수민족 언어로서 키르기스어의 경우 18세기 키르기스 부족들이 이슬람화된 이래 아랍문자로 이루어진 터키(Turkic) 언어그룹의 일원이었는데, 소련의 언어정책은 라틴어(Latin)를 최초로 도입하고(1928), 표준문자로서 키릴(Cyrillic) 문자를 도입하였으며(1940), 교과서와 사전을 통한 언어의 규칙화(codification), 그리고 현대 러시아 단어들을 키르기스어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언어자료계획’의 다양한 수단들을 채택하였다(Koenig, 1999).⁴⁾

그러나 이 “언어 형성” 개념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어는 궁극적으로 키르기스어보다 우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언어로서 러시아어의 보급과 1980년대의 “소련 민족”(Soviet people)의 신념(doctrine)에 대한 더욱 강한 정치적 강조 외에도, 이러한 러시아어 우세의 주요 요인은 현대화되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러시아어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실례로, 교육부문에서 교육언어로서 키르기스어의 사용은 교육수준과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련 해체 이전인 1990년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키르기스어로 교육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고등교육에서 23.4%인 반면, 러시아어로 교육받은 비율은 76.3%이었다. 그리고 특수 중등교육에서는 각각 18.0%와 81.1%이었다. 반면, 키르기스어로 교육을 받는 비율이 직업학교(49.2%)와 중등학교(55.6%)에서는 다소 높았다(Khazanov, 1995 : 250-1, Tables 1.3 & 1.4). 또한 키르기스어는 공공영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1980년대 후반까지도 서적,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키르기스어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러시아어의 우세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키르기스어 배우기를 포기하고 러시아어로의 전체적인 언어 이동(shift)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도시지역의 키르기스 지식인들 가운데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및 언어학적 전개의 결과로서, 러시아어는 경제, 행정, 교육 시스템 등에서 공식언어가 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다민족 간 커뮤니케이

4) 언어정책은 “언어지위계획”(status planning)과 “언어자료계획”(corpus planning)으로 구분한다(Kloss, 1969). 언어지위계획은 주로 미디어, 교육,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공식언어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반면, 언어자료계획은 해당 언어의 음성(phonetic), 의미(semantic) 및 문법적 측면을 규칙화하며 또한 공식언어의 사용을 현대화하고 표준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선의 주요 ‘도구적 언어’가 되었다<표 3>.

<표 3>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언어 구사 비율 (1989)

민족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인구 비율	키르기스어를 구사하는 인구 비율
키르기스인 (52 %)	37 %	-
러시아인 (22 %)	-	12 %
우즈베크인 (13 %)	39 %	4 %
우크라이나인 (3 %)	94 %	2 %
독일인 (2 %)	95 %	0.3 %

출처: Tishkov(1997 : 90), <Table 5-1>.

소련 지배체제 하의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어의 확산은, 비록 그것이 20세기 소련 사회구조의 전체주의적 이념의 부수물이지만, 연방공화국들로 구성된 소련이라는 국가체제의 특성상 언어의 상징적 기능 위에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그림의 결과라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언어로서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어의 사용을 선호했다는 구조적 변혁의 효과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언어의 상징적 기능이 공공 논의의 전면에 떠오른 것은 소련 해체 이후 국가 및 국민형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독립 이후 민족 정체성 구축과 언어의 상징적 기능

대부분의 탈-소련(post-Soviet) 민족주의 운동은 1980년대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민족모델이 이전의 다수 옛 소연방국가들 가운데서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해체 이후이었다. 소련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해방은 자주 러시아 지배로부터의 독립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탈-소련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또한 민족주의는 키르기스인들 가운데서도 내부 민족 분쟁을 야기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어를 자국어로 받아들이고 키르기스어의 언어 능력을 상실한 도시의 키르기스 사람들이 키르기스의 민족적 정체성의 반역자(mankurts)라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었다(Kolstoe, 1995 : 232-244). 그러므로 민족 간 및 민족 내 갈등 모두에서 언어는 민족국가 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상징으로서 기능을 하였다.

민족국가적 키르기스 정체성의 형성은 탈-소련 국가형성의 초기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하여 도구화되었다. 실레로, 독립을 선언한지 3년이 지난 1993년 5월 5일에 채택된 키르기스스탄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국민들은 키르기스인의 국가적 르네상스를 확보하고, 키르기스인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국민을 구성하는 다른 국적의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의 모든 국민(people, narod)들에 대한 ‘시민개념’(civic concept)과 키르기스 종족(people, natsiia)에 대한 ‘민족개념’(ethnic concept) 사이에 강한 내부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근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 문제는 언어, 문화,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구획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의 구축뿐만 아니라, 관료화, 산업화 및 법적 합리화의 구조적 역학관계를 포함하는 사회변화의 상이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과정의 결과였다(Anderson, 1983).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근대 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는 시민모델(civic model)과 민족모델(ethnic model)은 모두 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가정하지만, 대립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민개념의 시민모델은 전형적으로 공화정적(republican) 정치이론에서 형성된 모델로서, 근대국가에서 사회통합은 공식적인 시민권(citizenship)과 보편적 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법적 체제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가정하면서 탈민족화된(de-ethnicized) 공공영역을 확립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민족개념의 민족모델은 민족(Volk)이 공유된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가정 위에서,⁵⁾ 국가형성은 적어도 공통의 언어만이 아닌 공통의 역사적 기원과 운명, 공유된 문화, 심리구조 및 관습 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자기 연결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어 진다.⁶⁾

요컨대,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에 깔려 있는 민족주의는 단일언어주의(monolingualism) 이념에 의하여 유도된 언어정책에서 작용되어 왔으며, 러시아어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였다. 소련 해체 이전인 1980년대의 언어입법은 공식적으로 이중언어(bilingualism)를 언급하고 있지만, 독립 이후 1990년대 초의 언어입법은 이전에 러시아어에 주어진 공식언어로서의 지위를 무효화하고, 공식언어로서 키르기스어의 단독 사용으로 전환하였다(Huskey, 1995 : 552; Kolstoe, 1995 : 236-239).

5) 여기서 민족은 국가의 지리적 경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언어 공동체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을 뜻하는 용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6) 이러한 맥락에서, Gellner(1983)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민족(nations)을 생성하였으며, Stavenhagen(1996)도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국민형성(nation-building)이 국가형성(state-formation)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V.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으로의 전환과 정책집행

1. 단일언어정책의 정치적 도구화와 민족 갈등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족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헌법적 개혁 및 민주적 입법,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 수행 전략인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이러한 민족 갈등의 원인 분석과 수행될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현행 이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탈-소련 사회의 민족 갈등 분석에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차별성을 갖으려는 민족 정체성 구축 및 언어정책은 민족형성에 관한 원초주의 이론, 즉 언어나 종족과 같은 원초적 유대에 근거하여 주장된다고 본다(Banks, 1996 : 17-24; Tishkov, 1997 : 7-12). 공식언어였던 러시아어를 배제하고 키르기스어를 공식언어로 선언하는 키르기스스탄의 탈-소련 언어정책은 국가 형성에 관한 민족모델과 단일언어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제하는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의 형태를 취한 것은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정치적 조작과 동원을 강조하는 도구주의 이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항)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의 공식언어는 키르기스어가 된다.
- (2항)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국민들에 의해 사용되는 러시아어 및 다른 모든 언어들을 보존하고 동등하게 자유로운 개발 및 기능을 보장한다.
- (3항) 공식언어에 대한 지식과 구사력(command)의 부재를 이유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 조문에서 러시아어를 비롯한 다른 특정 소수민족의 기본적인 언어적 권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및 민족 형성의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적·언어적 정체성의 정치적 도구화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언어적 이슈와 관련하여 민족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많은 러시아인들의 탈국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리적 언어정책은 키르기스스탄 내에 거주하는 종족 간 분쟁을 야기하는 가능성 외에도, 소수민족 구성원의 언어적 권리를 침해하였다(Koenig, 1999).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정책은 전체인구 가운데서 과거의 지배를 받아오던 키르기스인의 특별한 요구를 보상 차원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민족 정체성이 언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정도, 키르기스인들의 정체성 주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실제로 교육, 미디어 및 공공 서비스에서 키르기

스어의 특혜를 의미한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에서 키르기스어의 증진은 러시아 인이나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적 권리까지 희생해 가면서 수행해서는 아니 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어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가 교육시스템의 기본언어로서, 민족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정치통합을 위한 중요한 연계언어(linkage language)로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2.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

1) 단일언어정책의 딜레마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족국가 운동의 등장과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언어의 정치적 도구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의 러시아인과 다른 소수민족, 특히 숙련된 노동력 인구가 유럽과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실례로, 1989년과 1990년 사이, 즉 소련 해체의 전망이 명백해지면서 도시 러시아인들이 이주해(emigration) 나간 비율은 거의 40% 정도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 최고조에 도달하였다(Khazanov, 1995 : 252; UNDP, 1997 : 54). 고학력 러시아인들의 이주의 증가는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경제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다. 비록 언어정책에 근거한 민족주의 형성이 키르기스어로의 언어적 전환(shift)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경제 및 정치 부문에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소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⁷⁾ 민족주의 맥락에서 그러한 언어의 전환이 개별 언어에 인식된 위상, 세대 간의 언어 변화 및 공공부문에서의 언어 사용의 유형 등과 같은 일련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분석된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적 예시에 의하여, 현대 민주국가들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각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정책의 핵심 딜레마를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국가의 정책이 문화·언어 다양성의 증가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소수집단의 정치적 주장 사이에 민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소수집단의 정체성 확립은 사회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공공영역(common public sphere)의 제도적 구조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들은 다언어적(multilingual) 사회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데 대응해야 할 딜레마이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정체성 주장과 다양성과의 충돌, 다민족에 의해 함께 공

7) Laitin(1996)의 경험적 연구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발틱해 인접 국가들의 이러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유되는 공공영역의 구조 및 기능 구축의 딜레마 해결에 Eide(1994 & 1995)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소수민족의 정체성 강화는 “분리된(separate) 영역”에 위치하는 반면, 정치와 경제 부문과 같은 “공통의(common) 영역”에서는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사회통합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함께하는 다원주의”(pluralism in togetherness)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 공유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이 두 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헌법과 공공정책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통의 영역”, 즉 경제 및 정치 부문에서 민족 정체성의 상징들은 점점 탈민족화(de-ethnicized) 되고, 반면 이 민족적 상징들은 “분리된 영역” 즉, 특정한 정체성 집단의 그들 고유 영역에서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언어는 공통의 영역에서는 도구적 기능을 행하는 반면, 분리된 영역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적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양자 모두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공유와 정치참여에 대한 복잡한 모델들 가운데서 소수 인종집단들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급속히 변화되는 세계화의 여건 아래서 사회통합의 딜레마에 가장 민주적으로 반응하는 모델은 다문화주의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2) 다문화 언어정책의 채택

소련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언어 사용을 규제하는 헌법 및 법률 규정들의 민족주의적 추진은 사실 대중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공식언어였던 러시아어가 소수민족 언어의 하나로 전략하는 종속화에 대한 반대와 키르기스어만을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단일언어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학력 키르기스인들의 항의는 단일언어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키르기스 의회는 1993년 5월 헌법 제5조의 수정을 통하여 헌법에서 러시아어에 키르기스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개정된 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어는 공식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

러시아인들과 독일인들은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인구의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州)에서는 러시아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행정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도 민족 간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러시아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키르기스스탄에서 공식적 이중언어주의의 채택을 지지하였다(Akaev, 1997 : 148). 이러한

모든 발전은 지역적 상이함을 다문화주의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조화하면서 엄격한 단일언어주의로부터 다문화 언어정책으로 연속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 및 대중미디어 부문에서 키르기스어의 강화를 결코 배제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98년 1월 16일에 대통령은 키르기스어의 언어자료계획(*corpus planning*)의 인식을 촉진하고 공식언어로서의 키르기스어의 사용을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도 다중언어정책(*multilingual policies*) 채택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키르기스어에 대한 지원은 실제 다중언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교육기관 설립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이러한 교육기관으로는 양국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키르기스-러시아 대학, 키르기스-우즈베크 대학, 키르기스-미국 교수회(*the Kyrgyz-American Faculty*) 및 키르기스-터키어 대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키르기스어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대중미디어의 강화는 다양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 된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확산을 가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를 강화하였다. 요컨대, 키르기스스탄에서 다문화 언어정책의 채택은 다원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이중언어(*bilingual*) 교육과 다국어 미디어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황적 흐름에 탄력적이며 민주적인 전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세계화와 이념 대립의 종식 등 많은 변수에 의하여 다양한 민족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다. 소련의 해체에 의하여 탄생된 새로운 독립국가들의 정체성 주장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협하는 민족 및 인종집단의 부활이 수반되어졌다(Khazanov, 1995; Tishkov,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에서와 같은 언어의 다양성 조건 아래 민족주의적 단일언어정책에 내재된 민족 갈등의 역학관계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다민족, 다언어의 복잡한 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단일언어정책의 시도는 다양한 소수민족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키르기스어 이외 언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민족주의적 추진은 많은 논쟁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복수언

8) *RFE/RL Newslne*, (1998년 1월 17일); *Vecherny Bishkek*, (1998년 2월 4일).

어를 수용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다원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력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더욱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서로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민족 간의 계급화된 사회구조는 민주화를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이며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오랫동안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적인 제도와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하는 데에는 먼 길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민족 간 언어 갈등은 국가의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에 의해 유도되었는데, 이렇게 갈등 해결을 요하는 특정 상황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의 확립은 분리주의적 언어정책으로부터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 다민족을 아우르는 다문화 언어정책의 채택은 이 나라 민주발전에 귀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연구는 관련 이론적 분석들과 실질적인 키르기스스탄 언어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우리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 방향으로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통의 영역’과 소수집단의 언어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분리된 영역’의 구성 및 그 사이에 균형된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에 관련된 인권 보호 목적에 잘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동화주의나 분리주의 정책보다도 더 사회통합을 성취하는데 더 큰 공헌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함께하는 다원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조약과 유엔선언 및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의 책임을 확보하며, 다양성을 적극 수용한다는 가치 전환과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통하여 국가 내의 상징적 및 실질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은 헌법과 정책의 책무(국가의 역할)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소수민족의 언어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 소수민족의 언어와 연계언어(주류사회와 소수민족 간, 소수민족 간)로서 한국어의 이중언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다문화정책의 궁극적인 효과에 대한 성공 여부는 미래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화의 여건 아래서 국민(민족)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이 다문화정책은 민족 간의 갈등 관리를 위해 더욱 실용적인 정책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호성. (1997).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울 : 당대.
- 유정석. (2003). 캐나다: 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 11: 12-26.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177-205.
- 임지현. (2000). 민족담론의 스펙트럼: 원초성, 근대성, 탈근대성. 『영미문학연구』, 8: 65-87.
- 장병욱. (2005).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과 민족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5(1): 29-48.
- 정세진. (2007).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2): 748-773.
- 關根政美. (1996). 國民國家と多文化主義. 初瀬龍平 (編). 『エスニシティと多文化主義』. 東京 : 同文館.
- Achylova, R. (1995). Political Culture and Foreign Policy in Kyrgyzstan. in V. Tismaneanu(ed.). *Political Culture and Civil Society in Russia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Armonk: M. E. Sharpe.
- Akaev, Askar. (1997). Let the Bell of Conscience Ring. *Central Asia and Culture of Peace Journal*. Bishkek: IICAS.
- Banks, Marcus. (1996). *Ethnicity: Anthropological Construc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ourhis, Richard Y. (1994). Ethnic and Language Attitudes in Quebec. 322-358. in Richard Y. Bourhis(ed.). *Ethnicity and Culture in Canada: The Research Landscap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ummins, Jim. (1984). Linguistic Minorities and Multicultural Policy in Canada. 81-106. in John Edwards(ed.). *Linguistic Minorities, Policies and Pluralism*. London: Academic Press.
- Deshirev, Yunus D. (1984). Social Progress and Sociolinguistic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6(1): 21-39.
- Dow, James R.(ed.) (1991). *Language and Ethnic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Edwards, John. (1994). *Multilingual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ide, Asbjørn. (1994). *Peaceful and Constructive Resolution of Situations Involving Minorities*. Oslo: Norwegian Institute of Human Rights.
- _____. (1995).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Equality and Pluralism, 229-43. in Lino-Alexandre Siciliano(ed.). *Nouvelles Formes de Discrimination/*

- New Forms of Discrimination*, Paris: UNESCO.
- Fishman, Joshua. (1977). Language and Ethnicity. in Howard Giles(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 Grin, François & Claudio Sfreddo. (1996). *Minority Language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Case of Italian in Switzerland*. Genève: Université de Genève.
- Habermas, Jürgen. (1994).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Amy Gutmann(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skey, E. (1995). The Politics of Language in Kyrgyzstan. *Nationalities Papers*, March 23.
- Inglis, Christine.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No. 4). Paris: UNESCO.
- Khazanov, Anatoly M. (1995). *After the USSR. Ethnicity, Nationalism, and Politic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loss, Heinz. (1969). *Research Possibilities on Group Bilingualism: A Report*.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Koenig, Matthias. (1999). *Democratic Governance in Multicultural Societies: Social Conditions for the Im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rough Multicultural Policies*. (MOST Policy Paper No. 30), Paris: UNESCO.
- Kolstoe, Paul. (1995). *Russian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Kreindler, Isabelle. (1997). Multilingualism in the Successor States of the Soviet Un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3-100.
- Laitin, David D. (1996). Language and Nationalism in the Post-Soviet Republics. *Post-Soviet Affairs*, 12(1): 4-24.
- Ozolnis, Uldis. (1993).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utnabb-Kangas, Tove, & Robert Phillipson. (1994). Linguistic Human Rights, Past and Present, 71-110. in Tove Skutnabb-Kangas & Robert Phillipson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Smith, Dan. (1997). Language and Discourse in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Current Issues in Language and Society*, 4(3): 190-214.

- Smolicz, Jurek. (1994). Australia's Language Policies and Minority Rights: a Core Value Perspective, 235-252. in Tove Skutnabb-Kangas & Robert Phillipson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Stavenhagen, Rodolfo. (1996). *Ethnic Conflicts and the Nation-State*. London: UNRISD/Macmillan.
- Taylor. C. (1997). Nationalism and Modernity. in Robert McKim & Jeff McMahan (eds.). *The Morality of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ishkov, Valery. (1997).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 The Mind Aflame*. London: UNRISD/Sage Publications.
- UNDP. (1997).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of the Kyrgyz Republic*. Bishkek.
- Vilfan, Sergji(ed.). (1993). *Ethnic Groups and Language Rights*. (Comparative Studies on Governments and Non-Dominant Ethnic Groups in Europe, 18 50-1940. Volume III). Dartmouth: European Science Foundation/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

Language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yrgyzstan: From Nationalism to Multiculturalism

Hwiwon Kang

This research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by analyzing the efforts of language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and harmony in the Republic of Kyrgyzstan. After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Kyrgyzstan adopted a nationalistic monolingual policy in the process of state-building, making the majority Kyrgyz languag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state. In the mid-1990s, Kyrgyzstan changed from the monolingual policy to a bilingual policy, declaring the Russian language an official language, too. This study trac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language policies and finds the policy implications. It deals with analytical theories, language conflicts, nationalism, and post-Soviet state-formation in Kyrgyzstan. It finds that ethno-linguistic conflicts in Kyrgyzstan were provoked by the state's policies that differentiated between languages and consequently required a shift from nationalist to multicultural language policies. It also suggests that multicultural policies are well adjusted to fulfill human rights standards pertaining to minorities and more likely to attain social integration in multiethnic societies than assimilationist and differentialist policies.

【Key words: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Kyrgyzstan, monolingualism, minority, multicultural language policy】